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관점에서 본 일본경제의 현황과 과제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특정되는 이른바「잃어버린 20년」의 시발점인 1990년을 분수령으로 그 이전과 이후 일본경제의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점으로부터 일본경제의 문제점을 수요/공급 측면에서 진단할 수 있음
- 앞으로「충족되지 않은 수요」에 주목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야 말로 장기침체를 타개하는 열쇠로 실수요에 뒷받침된 소비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할 수 있음

ㅇ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하에서 명목 GDP가 2009년에 1991년 수준까지 떨어진데 이어「잃어버린 20년」을 지나 2010년에는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넘겨줌

ㅇ 1인당 GDP면에서도 일본은 2010년 시점에서 42,325달러로 중국보다 약 10배 높은 수준이긴 하나 세계 순위 면에서는 1993년 제 2위에서 2009년에는 23위로 크게 밀림

ㅇ 이하의 내용은 일본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침체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장기 안정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임

1. 일본경제의 현황

(1)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한 특징 변화

ㅇ 196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경제는 1990년을 분기점으로 양상을 크게 달리하고 있음.

□ 1990년 이전

ㅇ 생산연령 인구, 노동력의 증가
ㅇ 제조업이 성장의 엔진
ㅇ 수요초과(demand pull)에 의한 인플레
ㅇ 종신고용·연공임금에 의한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낮은 실업률

□ 1990년 이후

ㅇ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노동력 감소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의 양 축
ㅇ 수요부족과 글로벌화에 의한 디플레 경제
ㅇ 노동시장의 양극화(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와 높은 실업률

(2) 1998년 이후 심각한 디플레경제

ㅇ 디플레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8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2009년에 2.1% 하락. 또한 GDP디플레이터는 1998년~2009년 기간 중 16.3%의 대폭 하락

(3) GDP갭(수급의 디플레 갭)의 未해소

ㅇ 일본 내각부에 의하면, 일본경제의 실제 수요와 잠재적인 공급력

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급 갭은 최근 2011년 3/4분기 중에도 마이너스 3.5%를 기록, 금액으로 연간 15조 엔의 수요부족이 발생

(4) 고수준의 실업율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진행(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

○ 2011년 1/4분기 일본의 취업자 수는 5,940만 명, 완전실업율은 4.7%. 정규 고용자 수는 3,135만 명, 비정규 고용자 수는 1,717만 명. 비정규 고용자비율은 1990년에 20%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35.4%에 이름

2. 잃어버린 20년의 원인

○ 일본경제가 1990년대 들어 20년이라는 장기 간의 침체를 보이게 된 데는 공급측면, 수요측면 다 같이 원인을 제공

(1) 공급 측의 문제

□ 생산성 침체

○ 이것은 1990년대 들어 버블붕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둔화가 잃어버린 20년의 주범이라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전요소생산성(TFP)의 상승률 둔화와 병행하여 일인당 노동시간이 10%나 줄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

□ 행재정개혁·규제완화 부실

○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연명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와 같은 연명을 가능케 하는 보호적인 행정이 바로 문제라는 것임. 이러한 분야에 존치되어 있는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의 경쟁원리를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것임

(2) 수요 측의 문제

□ 수요의 포화

ㅇ 개인소비의 침체는 일상적인 소비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임. 이와 같은 진단은 주택, 의료, 간병, 보육 등 이른바「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간과하고 있음

□ 민간의 자금수요 침체

ㅇ 민간의 자금수요 침체는 소위 설비투자의욕의 감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배경에는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고부가가치형제품에 대한 설비투자는 자칫 경영리스크 증대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임

□ 부실채권 처리 부진에 의한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 불황

ㅇ 버블붕괴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및 그 처리의 지연이 불황을 장기화시켰음.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도 새로운 설비투자 촉진을 유발하지 못한 채 대부분 부채 상환에만 자금이 돌게 했을 뿐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 금융정책 실패

ㅇ 디플레는 화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버블 붕괴 후 서둘러 일본은행이 금융을 완화,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했더라면 불황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임. 그 후 일본은행이 실시한 제로금리정책이나 양적완화정책도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임

3. 경제성장 이론

(1) 해롯드·도마-모델(Harrod-Domar model)

ㅇ 가장 초보적인 성장이론인 해롯드·도마 모델에 의하면 사회 전체로 저축성향이 높을수록 투자가 증가하여 처음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나 투자의 결과 자본스톡의 증가함에 따라 생산의 증가량이 적어지게 됨

ㅇ 이 이론에서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는 풍부하다는 전제하에 배제되고 있음. 이와 같은 노동 제약의 문제를 고려한 이론이 신고전파 경제성장 이론인 로버트·소로우의 성장모델임

(2) 소로우-모델(Solow growth model)

ㅇ 해롯드·도마-모델에서는 자본스톡을 늘리더라도 일정한 균형 상태에 이르면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게 됨. 이에 비하여 소로우 모델에서는 노동인구의 증가로 성장이 확대, 즉 경제성장률은 노동인구증가율과 같아지게 됨

ㅇ 나아가, 소로우는 성장회계에 의해 경제 전체의 성장원천으로서 자본투자와 노동인구에 더하여「소로우의 잔차(Solow residual)」가 존재함을 밝힘. 이것이 바로 전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며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 부분임

(3) 로머 모델(Romer model)

ㅇ 로머는 기술혁신가운데 연구개발 등에서 창출되는 아이디어가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내용을 알차게 함으로써 최종재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을 밝힘. 로머모델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디어가 비경합재,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이라는 점임

ㅇ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이야 말로 한 국가의 지식스톡(stock)의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1인당 GDP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오는 열쇠임. 아이디어의 이용에는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인당 아이디어 량이 아니고 아이디어의 스톡총량임. 지식스톡의 증가는 그 지식에의 접근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로머모델의 중요한 교훈임

4. 경제성장의 동인으로서 아이디어

(1) 토마스·에디슨

ㅇ 에디슨의 최대발명은 연구개발(R&D)에 있음. 즉 특정 발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목적으로 조직을 창설, 에디슨 이전의 발명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였음. 기업들도 계속적인 기술진보를 이루어내는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에디슨은 이러한 발상 그 자체를 발명한 것임.

(2) 월마트 효과

ㅇ 1995년 이후 미국의 생산성상승의 주인은 소매업에서 노동자 일인당 생산성 급증, 즉 각 점포에서 종업원 일인당 상품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ㅇ 예를 들면 미국의 최대 소매업 월마트는 생산성 개선을 위해 재고관리에 컴퓨터를 사용, 바코드스케너를 사용, 공급자와 직접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확립한 최초의 기업 중 하나임. 크루그만에 의하면 바로 여기에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는 것임

ㅇ 그 하나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임. 모든 소매업자들이 컴퓨터를 알고 있으나 월마트는 그것을 사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파악했다는 점임

ㅇ 또 하나는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새로운 기술보다도 오히려 일상적인 개선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임

(3) 도요타의 간판 방식

ㅇ 일본에서 기술혁신, 아이이어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요타의 생산방식인 just in time임. 자동차와 같이 3만점이나 되는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조달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

ㅇ 이것을 현장의 일상적인 작업 속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간판방식으로 슈퍼마켓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함. 자동차의 생산라인인 후 공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전 공정으로 가지러 감으로써 전 공정인 부품메이커가 쓸데없이 부품을 많이 만들어 후공정에 비축해왔던 종래의 비효율적인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됨. 이 아이디어는 델 컴퓨터 등 많은 기업들에 의해 모방됨

5. 시사점

ㅇ 아이디어야 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ㅇ 전요소생산성(TFP)의 향상을 꾀하더라도 아이디어를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소비자의 니즈 또는 후 공정의 만족도라고도 볼 수 있음

ㅇ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술혁신이란 단순한 기술적인 발명이 아니고 연구개발과 한 축을 이루는「영업」을 포함한 일상적인 경영기법의 개발임

ㅇ 국민생활 분야에는 주택, 의료, 간병, 보육 등 미충족된 수요가 많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잠재적인 내수를 부단히 가시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수요를 소비에 의해 충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이나 교육 등 제도의 혁신에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됨. 오늘날 성장의 질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충족된 수요에 주목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야 말로 장기 경제침체를 타개하는 열쇠로서, 실수요에 뒷받침된 소비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할 수 있음

* 본 내용은 다음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일본경제의 현상과 과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관점에서서 시론 : 정책과제』, 일본 참의원, 1월21일
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2pdf/20120113149.pdf